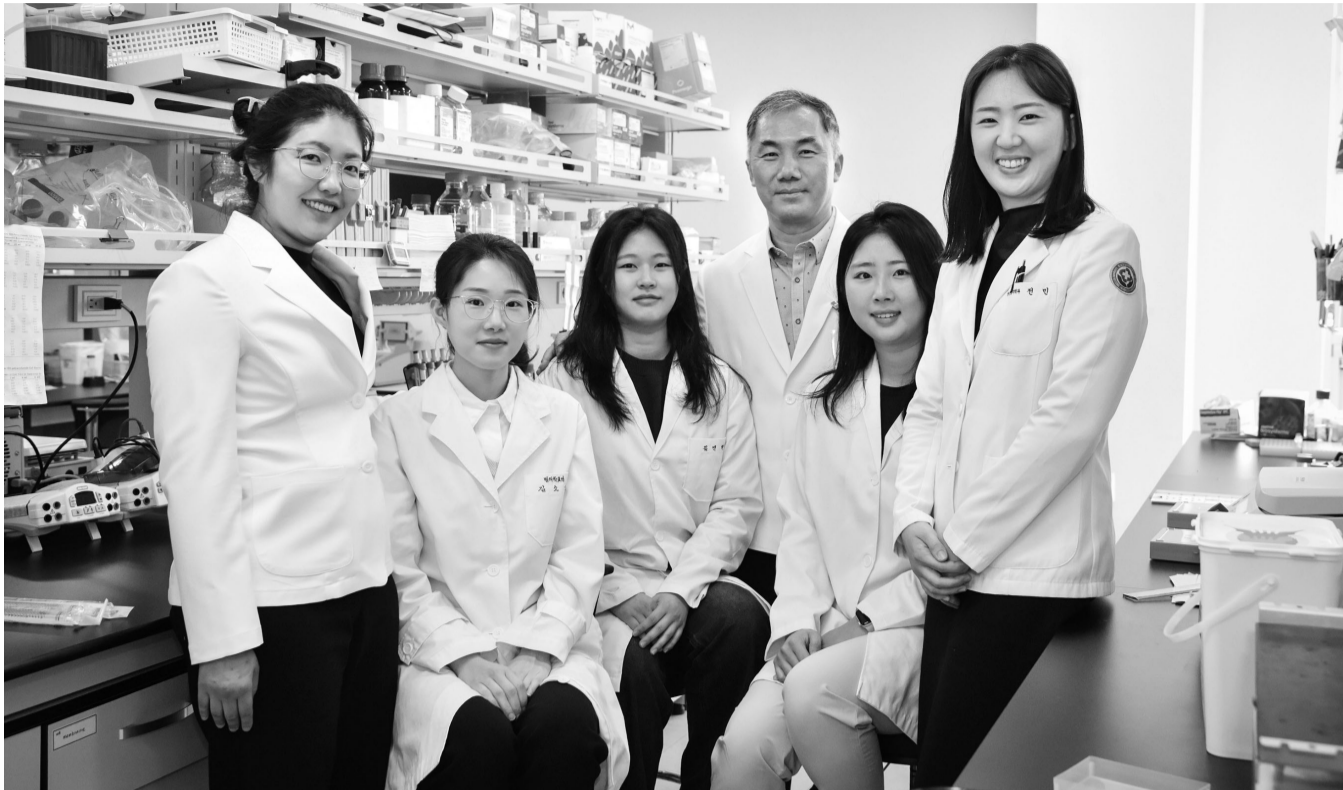


‘우울증 조기 진단·치료’... 바이오마커 발굴 주목

화순전남대병원 김형석 연구팀
약물 반응성 지표...특히 출원
자살 예측·우울증 중증도 평가
간편하고 객관적인 검사 가능



(왼쪽부터) 이수진 교수, 김소연 연구원, 김민하 연구원, 김형석 교수, 이수현 연구원, 전민 교수.

화순전남대병원 제공

“이번 연구결과는 우리 사회의 큰 난제인 자살 예방에 한 걸음 더 다가가는 힘이 될 것입니다.”

화순전남대학교병원 연구팀이 우울증을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바이오마커를 발굴하고 특허를 출원해 주목받고 있다.

3일 화순전남대병원에 따르면 자살의 주요 원인으로 알려진 우울증은 조기 진단과 치료가 중요하지만 진단 과정은 설문 검사와 정신건강 전문의 상담에만 의존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화순전남대병원에서 우울증의 바이오마커를 발굴하면서 관련 질병 치료에 획기적인 변화를 몰고 올 것으로 보인다.

바이오마커는 질병에 대한 약물의 반응성을 객관적으로 측정하는 지표다. 암을 비롯해 뇌졸중, 치매, 정신건강 등을 진단하기 위한 효과적 방식으로 각광 받고 있다.

화순전남대병원 김형석(병리과), 이수진(법의학), 전민(정신건강의학과) 교수 연구팀이 발굴한 ‘자살을 예측할 수 있는 혈액 바이오마커’와 ‘우울증의 중증도를 평가할 수 있는 바이오마커’는, 임신 진단

키트나 코로나19 진단키트처럼 간편하고 객관적인 검사가 가능하다.

바이오마커 발굴과 특허 출원의 성과는 전남대학교 의학과 학생 연구원들의 노력이 함께 만들어낸 결과다. 이수현(2학

년), 김민하(1학년), 김소연(석사) 연구원은 자살로 판정된 뇌 조직에서 일반 사망자와 비교해 특이하게 발견되는 유전자를 발굴한 후 이를 말초혈액에서도 확인했다. 이 같은 결과를 전민 교수 연구팀과

함께 임상시험을 통해 실제 적용 가능성을 입증했다.

연구팀은 100여명의 주요 우울증 환자를 대상으로 자살 위험 가능성을 예측하는 유전자 바이오마커 3종을 개발했으며, 기존의 우울증 설문지(PHQ-9)보다 높은 정확도로 자살 위험군을 구분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

또 특정 바이오마커를 통해서도 주요 우울 장애 환자의 중증도를 경증 우울증과 구분하는데 성공했으며, 앞으로 치료 과정의 모니터링에도 활용 가능하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김 교수는 “생물학적 바이오마커를 활용한 사망 종류 판별은 법의학의 새로운 과학적 접근 방식이다”며 “이번 연구를 통해 우리 사회의 큰 난제인 자살 예방에 한 걸음 더 다가가고자 했다. 특히 어려운 시기에 묵묵히 연구에 매진해 준 의사 과학자 연구원들에게 감사하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연구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중장기과학수사감정기법연구개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지역지능화학신인재양성사업), 과학기술정보통신부(뇌질환극복연구사업), 전남대병원(의사과학자양성사업)을 통해 진행됐다.

노병하 기자 byeongha.no@jnilbo.com

조선대병원 감염병전문병원 중심 대응체계 구축 보고회

지난 6월 착공...2026년 말 완공
지자체·병원 34곳 관계자 등 참여

조선대학교병원은 최근 어반브록 3층 갤러리홀에서 감염병전문병원 중심의 의료대응체계 구축사업 결과보고회를 개최했다.

3일 조선대병원에 따르면 이번 회의는 호남권역 내 감염병 대응을 시행할 관계기관 네트워크 구축 확대 및 특성화 사업으로 권역 내 자원 조사 항목 표준화와 신속한 자원 활용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에 신종감염병 의료대응 체계 구축을 위해 호남권 질병대응센터 외 지자체 7개소 및 실무협의체 참여병원 34개소(제주도 제외), 조선대병원 실무자 등을 대상

으로 감염병전문병원 중심의 의료대응체계 구축사업 결과보고회를 진행했다.

회의 주요내용은 △신종감염병 대응행태 대비 국가정책 △감염병전문병원 자원현황 △구축사업 결과보고 등이다.

김동민 감염병전문병원 건립 추진단장(조선대병원 감염내과 교수)은 “이번 결과보고회는 그동안의 성과를 점검하고 문제점과 개선점을 도출하며 향후 더 나은 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초가 될 것이다”며 “앞으로도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감염병 위기 상황에 더욱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가자”고 말했다.

한편, 조선대병원은 지난 6월 국내 최초로 감염병전문병원 착공식을 가졌고, 2026년 말에 완공될 예정이다. 노병하 기자

상급종합병원 → 2차병원 회송 외래환자 급증

심평원 ‘분기별 회송료 청구현황’
1분기 12만5000명 → 3분기 20만명

전공의들이 수련병원을 이탈한 이후인 올해 2분기 이후부터 상급종합병원에서 2차병원으로 회송된 외래 환자 수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3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 따르면 전국 상급종합병원에서 2차병원으로 회송한 외래환자 수는 올해 1분기 12만5835명에서 2분기 17만496명으로 4만4661명(35%) 증가했다.

3분기 회송 외래환자 수도 2분기 대비 3만7257명 증가한 20만7753명으로 21%의 증가율을 보였다.

회송 외래환자 수는 2023년 1분기 17만460명 이후 2분기 13만5188명, 3분기 12만3307명, 4분기 12만704명으로 집계됐다.

올해 초까지 12만명을 좀 넘는 수준이 유지되다 전공의들이 수련병원을 이탈한 2월 중순 이후인 2분기부터 회송 외래환자가 늘고 있는 것이다.

다만 회송 입원환자 수는 올해 1분기 4만549명에서 2분기 3만2537명, 3분기 3만8215명으로 소폭 줄었다.

상급종합병원이 심평원에 청구한 환자 회송료는 외래 환자의 경우 올해 1분기 68억5936만원에서 2분기 124억1605만원으로 55억5669원(81%) 증가했고 3분기엔 172억4099만원으로 2분기 대비 48억

2494만원(38%) 늘었다.

입원 환자 회송료도 올해 1분기 29억7151만원, 2분기 32억9395만원, 3분기 41억7586만원으로 늘었다.

정부는 상급종합병원이 중증 및 고난이도 환자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2016년부터 의료·회송 시범사업을 실시 중이며 의료계 집단행동 이후 회송수가를 인상한 바 있다.

뉴시스

진일보
@jnilbo
Kakao Talk : 진일보
E-Mail : jebo@jnilbo.com

누구나 쉽게 바르는 황토 벽지

새집증후군 완벽차단!!

살아 숨쉬는 고어텍스 특허공법 천연황토 코팅제!!

▶ 용도
...어린이집·유치원·한옥 내·외부·방바닥·전원주택·경로당·아파트·펜션·찜질방·카페·휴집
외벽·목재·양어장·물탱크·기타 인테리어를 요하는 곳
비가 오면 축축하거나 물이새어 곰팡이 생기는 모든 곳
기존 황토미장된 곳이나 도배지를 뜯지않고 위에 시공을 요하는 모든 곳
...비염으로 고생하는 어린이방이나 새집증후군 완벽차단!!

▶ 친환경성
천연황토, 게르마늄, 솔잎, 편백나무, 약쑥, 참숯, 은행잎등 건강에 좋은재료를 엄선하여 고분말로 만들어 술향기나는 친환경 웰빙제품입니다.

▶ 색도조절제 화이트(600g) : 원하는 색상 조절가능

자가 황토 제품과 비교 절대 불가!!

▲ 유사품에 주의하세요 ▲
시중에 검증 받지 않은 방수제품들이 난무하여 소비자들을 현혹하여 판매 및 시공하는 피해사례가 있다고 있습니다. 드림코리아는 특허 인증 품질 보증 업체입니다.

전화 문의시 관련 책자를 보내 드립니다.
(제곱구입시 시외 지역은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드림코리아
DREAM KOREA

전국 대리점 및 판매점 모집(무담보, 무보증)
문의 : 080-362-7788
www.dreamkorea.biz